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멧쟁이학교 4학년 학생들이 해외 문화체험학습으로 유럽여행 중입니다.
- 김용필 집사님께서 30일(화) 수술하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 다음 주일은 총회(교단)주일입니다. 총회를 위해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 오후에 각 역할공동체 실행위원회 2/4분기 정기회의로 모입니다.
- 다음 주일(9월 4일) 오후에 공동체운영위원회 2/4분기 정기회의로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정낙귀(생일) · 정혜정 집사 가정
김영화 권사 (감사)
김영희 권사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장영미 전도사 (생일 감사)
서금선 권사 (부군 기일)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35 호

2022년 8월 28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주선애 교수 생애 이야기

지난 8월 25일 장로회신학대학교 한경직 기념 예배당에서 「故 주선애 명예교수를 추모하며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서 중에 약력소개(양금희 교수)의 내용을 글로 옮깁니다.

1924년 평양에서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주기남은 딸이 세 살되던 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아내에게 “선애를 잘 키워 주오 딸이지만 꼭 기독교 선생이 되도록 길러주시오.”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주선애는 정의여자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의 동평양 유치원에서 보모로 일하다가 평양신학교 최기호 전도사와 혼인 후 사역지인 황해도 장현군에서 소학교 교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에 평양신학교 여자 신학부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 곳에서 몇날 몇일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 예수님의 못박히신 손과 피흘리신 손을 생생하게 보게 되고 주님의 여종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살겠다는 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7년에 공산당의 교회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 지면서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온 주선애는 남산에 장로교 신학교에 편입하여 학업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 남편인 최목사가 지병으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주선애는 장로회 신학교의 3회 졸업생이 됩니다. 졸업 후 그녀는 신망고아원 원장으로 대구 고등성경학교에 사감으로 있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고 청소년들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 그녀는 유학길에 올라 미국 성서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한국에서 하던 대로 새벽기도를 이어갑니다. 새벽에 기도할 장소가 없어 학교에 13층 창고에서 혼자 기도를 하였는데 당시 함께 공부하였던 팻 로버슨, 덕 화이트, 유진 피터슨과 같은 학생들이 함께

새벽기도에 합류하게 되었고 그곳에 기도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후에 미국에 영적 지도자들이 됩니다.

귀국 후 주선애는 송실대에 대한민국 최초로 기독교교육과를 세우고 그곳에서 가르치다가 1965년에 장로회 신학 대학교에 기독교 교육과를 설립하시고 은퇴할 때 까지 이곳에서 가르치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고 그것으로 한국 기독교 교육의 대모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학대학교 교수로서 가르쳤지만 언제나 기독교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실천가였습니다. 그녀로 인하여 한국에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생겼고 교단의 커리큘럼과 교과책이 최초로 개발되었습니다.

학생들도 그녀의 수업을 통해 도전을 받아 전국 방방곡곡에 강습회를 섬겼고 지리산으로 전도여행을 가 그곳에 30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교수님의 권유로 망원동 판자촌에 가서 죽기까지 그곳을 섬기다 숨진 이상향 전도사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학교와 조국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1989년 은퇴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학교를 위해 장신경건 훈련원의 전신인 은성수도원을 매입하여서 학교에 헌납하시면서 신학생들에게 꼭 영성 훈련을 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신대원생이 받고 있는 영성 훈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평양 출신인 교수님은 통일과 탈북자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신대도 그 일을 하라고 남북한 평화신학 연구소가 세워지도록 헌금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여교역자 안식관도 건립하셨고 은퇴 후 갈곳 없는 여선교사들을 위해 여선교사 안식관도 건립하셨습니다.

교수님은 2022년 6월 19일 9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교수님은 늘 새로운 꿈을 꾸셨고 그것의 실천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교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꽃 피울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최기찬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
< 마가복음서 4장 40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마가복음 9:2~50
제목 : 예수님께 배우자.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93 335 322

관찰]

- 1-1] 2~13 메시아의 공인과 사람들의 무지
- 2] 14~29 믿음과 의심
- 1-2] 30~41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자리싸움
- 3] 42~50 죄를 짓게 만들지 말고 화목하라.

해석]

- 1] 우리는 오해하거나 잘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그분께 배우면 점점 잘 듣게 된다.
- 2] 나에 대한 신뢰가 아닌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자.
- 3] 자기를 위해 타인을 이용하면 지옥이 되고 덕을 세우면 화목해 진다.

적용]

- 1] 두려워하거나 이전 경험에 갇혀있지 말고 예수님께 배우자.
- 2] 더 높은 믿음의 경지로 나가자.
- 3]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

선교는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건가 봐요

장마 기간 어느 즈음 날에 위층에서 샌 물이 우리 집 천장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시작된 집수리는 하나 손보면 또 하나가 보이고, '인건비 나가는 김에 지금 하자'가 되어 방학 내내로 이어졌다. 남편이 쉬는 주말은 일을 벌이고 평일은 혼자 정리하면서 점점 마음이 지쳐갔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좋은 얘기를 나누고 싶고, 좋은 것을 보며 나를 토닥이고 싶음이 간절할 때 국내 선교지 방문에 동참하게 되었다. 목적은 그간 물질로만 섬겨 왔던 3곳을 방문하여 인사와 위로를 드리자는 것이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폐가 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마음에 진심으로 사랑을 담고 새터마을교회로 첫발을 디뎠다. 사택을 철거한다는 소식을 들은 터라 마음 아플 현장을 바라볼 각오를 하고 마주한 그곳은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를 마중하는 식구들과 함께 환한 새 터로 반겨주었다. 권혁신 목사님께서 철거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서글프기 짝이 없던 그때를 지나 토지를 정리한 후 다시금 새로운 안목으로 새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실 때는 몸이 오싹해질 만큼 감동과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

맛있는 점심을 함께 나누는 후 끝 여름을 즐기는 여행객이 된 듯 잠시 착각을 하게 하는 멋지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지리산맥과 계곡을 보며 의탄교회에 닿았다. 최경희 목사의, 끊을 수 없는, 속을 푸는 말씀을 들어 드리며 1박을 했다. 목사님도 사람이 고프셨구나. 웃으며, 공감하며 함께 나누는 얘기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침밥을 안 먹겠다는 우리 때문에 애가 타시는 목사님을 뒤로하고 용계리로 가며 휴게실에서 마시는 모닝커피는 꿀맛이었고 우리 다섯은 많이 친해져 있었다. 야들야들하신 박인옥 목사님처럼 용계리교회는 예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었다. 손수 지어 차려주신 밥상과 그곳 성도들의 이야기, 은퇴와 후임에 대한 기도, 건강 문제 등 이런저런 상황을 식구에게 말하듯 편안하게 풀어 주는 언니 같은 목사님이 주머니에 5만 원을 찢러 주며 손을 흔드셨다.

국내 선교지 방문을 회상하며 지난 수요일 성서일기 본문 중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 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라는 말씀이 생각난다. 우리의 걸음은 소금을 치는 행위, 즉 소금 우정을 다지는 걸음이었구나. 좋은 사람, 좋은 얘기, 좋은 것을 보고 싶었던 세 가지 소원이 하나님 손에서 단번에 이루어졌음을 감히 고백해본다. 선교공동체 하경임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이사야서 2 : 3b
36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누가복음 15 : 7
288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마가복음서 4 : 35-41
371
“ 두려움에서 경외심으로 ” 정재훈 목사
설교자
사랑방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302
516(1)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채영학 박경희 / 봉헌위원 : 장성아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후반기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의 모든 풍파에서 저희를 건져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움에서 경외심으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날은 저물어 이미 저녁이 되었지만, 제자들은 분부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노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단하신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곤히 잠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과 풍랑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물이 들어차서 곧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었던 풍랑이 순식간에 가라 앉았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광경을 본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했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은 제자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느꼈던 두려운 마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여정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이 여정에 제대로 나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입니까?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삶의 안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김용필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꾸러기들이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방학 전보다 밥도 더 잘 먹고, 인사도 더 잘 하고, 더 잘 노는 꾸러기들입니다.

서로 반가워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놀다가 신나서 소리도 깹깹 지릅니다. 귀 아프니 소리는 그만 지르자고 해도 반갑고 신나는 마음은 작아지지 않습니다. 서로 방학동안 지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학기보다 꾸러기들이 자기 이야기도 잘하고, 이야기하는 친구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잘 들으며 끝까지 모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만들기 재료들을 정리하다가 모루와 수수깥을 담아 두었습니다. 쓰는 방법을 살짝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아서 이걸 재미있게 잘 가지고 놀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음날 보니 수수깥을 마스크에 붙여 마이크를 만들고 모루로 동물 귀모양이 있는 머리띠를 만들어 쓰고는 연극 놀이를 한다고 하고, 모루로는 마스크 걸이도 만들었습니다.

마당을 돌며 새로 피어난 꽃들과 강아지들도 보았습니다. 강아지가 귀여워 가까이 보고 싶어하면서도 어미가 싫어할까봐 거리를 두고 한참을 봅니다.

방학동안 각자 올 때마다 돌보던 밭에서 다같이 방울토마토를 땀습니다. 간식을 먹을 수 있을까 싶어 일단 조금만 담아주었더니 다 먹고 더 먹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뛰어노니 하교하는 차에서 잠이 들기도 하고, 저녁을 먹으며 졸음과 싸우느라 힘들어 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도 다음날도 모여 모두 씩씩하게 놀았습니다.

쑥쑥 자란 꾸러기들이 이번학기에 또 얼마나 재미있게 보낼지 기대가 됩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한주간 학교는 점점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개학을 위해 모여 회의도 하고 교실에 부족함이 무엇인지 고칠것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생활공동체 분들이 잔디도 깎고 위험한 물건들도 치우는 등 어린

이가 올 공간들을 다듬었습니다.

이렇게 하고나니 개학이 찾아왔습니다. 어린이들이 오랜만에 학교에 와서 반갑게 인사하며 그간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남자들은 어느새 모여 축구를 시작했고 여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신나게 놀았습니다. 방학중에 틈틈이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한 어린이도, 숙제를 안 해온 어린이들도 이틀간의 학교생활을 아쉬워하며 다음주에 만날 것을 기대하며 헤어졌습니다.

이번 학기, 바뀐 점 하나는 부모님들께서 점심에 설거지 봉사를 들어오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시작된 일이지만 학교에와 자녀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볼 수 있고 함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진행되고 좋은 경험들이 삶을 단단히 채우는 시간들이 되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 해 주세요.

< 교사 : 권재만 >

멋쟁이학교

멋쟁이학교는 오늘부터 개학입니다. 지난주는 개학 준비로, 방학 마무리로 멋쟁이들도 선생님들도 분주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

지난 20일에는 '멋쟁이학부모회'가 있었습니다. 개학 전에는 설거지 당번을 정하고 논의 사항 공유하며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는 자리라고 합니다. 학교를 위해 사랑과 봉사와 기도로 함께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23일 화요일에는 4학년 멋쟁이들이(장성아 선생님, 김지우, 이은빈, 정이안, 진시우) 약 한 달간 '해외공동생활경험-성지답사'를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해외라는 낯선 환경에서 함께 새로운 것을 보고, 먹고, 사랑하며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행하길 기도합니다 ~

지난 금요일(26)은 '예비 소집일'로 멋쟁이들이 학교에 나와, 오랜만에 친구, 선후배, 선생님들을 반갑게 만나고 학교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개학 준비를 하였습니다.

2022년 2학기 개학이 기대됩니다 :) 멋쟁이들 ~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만나요~~!
< 교사 : 박예나 >

가족, 친척, 한 가족

길게 느껴졌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며칠 사이로 이렇게 가을 느낌이 물씬 나니, 자연의 섭리와 선조들의 지혜를 생각하며 신기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가보지 않았던 친척집을 몇 군데 들렀습니다. 먼저 대구에 있는 남편의 고모님댁에 들러 우리 아이들의 6촌 동생에게 챙겨둔 장난감 보따리를 전해주러 갔습니다. 갑작스런 방문 소식에도 흔쾌히 맞아주시고, 선물의 주인공인 동생도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형들의 장난감 조립 설명에 신이 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놀다가 물에서 놀아도 되는 장난감을 들고 셋이서 화장실로 쫓르르 달려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 다음 간 곳은 저의 이모의 별장(?)이었는데 마당에 캠핑카를 설치해두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랜만에 연락해서 가게되었습니다. 잘 꾸며둔 마당에서 준비해주신 저녁을 먹고, 한참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캠핑카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캠핑카에서 잤다는 사실 만으로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장난감을 준다고, 또 캠핑카에서 자본다는 목적으로 방문했던 것인데, 방문을 당한 고모와 이모가 더 좋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모는 너무 오랜만에 조카가 왔다고 즐거워하시고, 사촌동생 내외까지 모여서 같이 놀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이모는 전화통화에선 충청도 특유의 말투로 담담하셔서 가면 좋아하시나.. 괜히 폐를 끼치는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친정식구 중 첫 방문이라며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촌동생에게는 제가 20년 전쯤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지워진 기억인데.. 동생에게는 큰 추억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에서 서로를 부르는 말이 참 다양합니다. 아이들이 물어봐서 설명을 하다보면 아빠의 고모의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너한테는 6촌 동생이야. 너무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만큼 가족과 친척들의 관계가 중요해서 이런 호칭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보면 호칭만 다를 뿐, 우리 공동체 식구들도 한 가족입니다. 만나면 반갑고, 서로를 위해 마음을 쓰고 기도하는 가족이지요. 예배 후 마당에 어울려 앉아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면 명절을 맞은 친척들처럼 즐거워 보입니다. 이제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니 그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디아코니아사랑방 노미현 사모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마가복음 8:27-34

인도 : 장영미 전도사

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월전 단지를 점령하여 그것을 무기로 여러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량 저하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물가 상승과 에너지 난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히 전쟁이 평화롭게 마무리 되어서 더 이상 생명에 위협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새터마을교회>

- 1)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 2) 흩어져 있는 새터마을 식구들이 이번 건축을 기점으로 각자의 삶을 잘 정리하여 순조롭게 연합되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후반기 생활>

- 1) 일상으로 돌아가는 하반기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 2) 각 학교들의 개학과 2학기 생활을 위한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 3) 유럽 문화 체험을 떠난 멋쟁이학교 4학년 학생들과 선생님의 안전한 여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휴가를 마치고 아침기도회와 수요정오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고 각 학교의 개학 준비를 했습니다. 잡초 제거하는 작업과 주변 시설물을 정리였습니다. 손길이 닿은 곳은 깨끗해져서 마음에 안정과 평화를 줍니다.

한국공동체협의회 지도자 모임이 라파공동체에서 있었습니다. 정태일 목사님 내외분과 사무장님이 참석하셨고,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한국의 공동체들이 오랫동안 만나니 다들 너무 반가워하셨습니다.

목요일에는 생활공동체 정기 회의와 8월 생일 축하를 했습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함께 사는 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면 한 식구인 것이 확인됩니다. 더욱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하반기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장영미 전도사 >